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아시아 슬로시티 기념 걷기 축제 11년째 열어

나비야 청산가자 · 구들장논 체험 등 편성



완도군은 2020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오는 4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32일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개최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0일 완도군 청 상황실에서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정, 축제 기간 확정, 대행사 선정 방법 결정,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 선정을 기념하고 방문객들에게 느낌의 미학을 선사

도 구들장논 체험 등 50여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식 개막 행사는 4월 11일 개최 하며, 예년과 달리 완도항을 출항하는 여객선상에서 관광객들과 함께 선상 개막식을 개최하는 등 형식을 파괴하는 프로그램으로 편성 한다.

특히 슬로걷기 축제 성공 개최 여부는 해상의 날씨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축제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으로 청보리 등 경관 작품을 활용한 포토존을 확대 설치하고, 특색 있는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운영한 '나비야 청 산가자' 프로그램은 매년 배추나비를 1천 마리를 날려放过하거나, 확대 운영 여론이 높아 올해는 2020 마리를 두 차례에 걸쳐 날리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송현 완도군청 관광과장은 “관광 자원이 풍부한 완도군에서 개최한 축제가 지난해는 전라남도 대표 축제에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우리나라의 섬, 해양 대표 축제인 20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내 탑(TOP) 축제에 선정되도록 운영 및 홍보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원도=김광수 기자

함평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10% ↑

함평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567건 9,700여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각종 면허 중 현재 유효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군은 지난해 대비 10.4% 증가한 9,700여만 원을 정기분 등록면허세로 부과했다.

전기사업 발전허가를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이 증가하면서 건수도 지난해보다 6.5% 늘었다.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강진군, 세외수입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지방세수 확보 위한 적극적 노력 결실 맺어

강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년 세외수입 운영평가'에서 전국 1등급 자치단체 달성을 포함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며 2019년 평가결과 전라남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강진군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분석 · 진단 평가는 행정안

전부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세외수입 징수율 증감, 체납액 축소 노력도 등 3개 지표 13개 항목에 대하여 서면조사, 현지실사 및 교차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관리운영 실태를 진단했다.

이승우 군수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열악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세외수입의 성실한 남부통도 조성과 체납액 줄이기를 통해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무안군, '보다 편리하고 똑똑해진 홈페이지' 14일 오픈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 ... 접근성 향상



무안군이 운영 홈페이지를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보다 편리하고 똑똑한 홈페이지로 새단장하여 이달 14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최근 5년간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였

리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입력 패턴을 기반으로 한 주천메뉴와 즐겨찾는 메뉴를 제공하는 똑똑 메뉴를 구축하였으며, 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강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교육강좌 통합안내 메뉴를 신규로 구축하였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타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디자인을 갖췄음은 물론 다양한 디스플레이 종류에 맞춰 최적화된 형태로 자동 제공하는 반응형 웹이 구축되어 쉽게 콘텐츠 접근이 가능해졌다.

김산 무안군수는 "앞으로도 이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여 보다 편리하며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담아내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 2020년 산림소득사업 지원 비율 확대한다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비율 40%→50% 확대 지원

장흥군은 2020년 임산물 생산유동 활성화를 위해 산림소득사업 지원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비율을 기존 40%(자부담 60%)에서 올해 50%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임업인 부팀을 낮춰 임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임산소득 증대를 가져오겠다는 계산이다.

공모사업을 통해서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조성' 및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9건에 15억여원의 임산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표고종균 구입은 전년과 같이 100% 지원한다.

노지재배 원목표고버섯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상자 우선 선정 및 지원 확대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원목표고버섯은 자연재해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적극 건의하여 장흥표고버섯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지역 대표



임산물인 표고버섯뿐만 아니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보다 다양한 산림작물의 생산, 가공, 유통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흥=위지훈 기자

영암군, 현장 확인행정 한층 강화, 군민중심 선진행정 실현

영암군에서는 지난 13일 전동평 군수와 손점식 부군수, 실과소장 등 관계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역' 건설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하게 될 군정 핵심사업과 新 4대 핵심발전 전략산업,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심도있는 점검과 군정 발

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 하는 등 소통과 협업의 시간을 가졌다.

전동평 군수는 민선 7기 반환기를 맞는 2020년 올해, 지난 5년 6개월의 성과를 토대로 5대 군정방침을 ▲더불어 잘사는 희망복지 실현 ▲고품질, 고소득의 생명농업 육성 ▲신성장동력의 미래산업 선도 ▲전통과 미래의 문화관광 창출 ▲군민과 소통하는 일등영암

건설 추진으로 정했다.

군에서는 올해 5대 군정 방침에 따라, 6만 군민과 1천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꿈과 희망의 지역, 영암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전동평 군수는 "지난해 성과는 군민과 함께 이뤄낸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